

조기 결실성 오디용 뽕나무 품종 대성뽕의 주요 특성

성규병, 남학우, 김현복, 홍인표, 정인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감사양봉소재과

Silk 생산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잠사업이 사양화 되면서, 1990년대 이후 양잠산물의 기능성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중 뽕나무분야에서는 오디의 맛과 향이 우수할 뿐 아니라 많은 기능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즙, 잼, 술등 많은 가공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디생산을 위한 뽕나무 재배법이 개발되었으나, 품종은 주로 장려품종인 청일뽕이 이용되고 있을 뿐 오디용 뽕나무 품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배수체 계통이 오디가 커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오디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배체 계통을 생산하여 3개 지역에서 적응시험을 한 결과, 오디생산용으로 적합한 품종으로 인정되어 대성뽕을 처음으로 등록하였다.

이 대성뽕의 특성은 휘카스품종을 삼목한 다음 생장점에 콜히친을 처리하여 유도한 4배체로 $2n=56$ 이며, 노상계(*Morus lhou*(Ser.) L.)이다.

수량성은 청일뽕대비 48% 증수되는 다수성이며, 오디의 과중은 3.3g으로 대과형이다. 특히 청일뽕이 일반적으로 심은 후 3년차부터 결실되는데 비하여, 2년차부터 결실되는 조기 결실성 품종이다.

오디의 당도는 청일뽕 15.2°Bx 에 비해 다소 낮은 13.6°Bx으로 나타났다. 내한성에 다소 약하여 한랭지는 피해야 하며, 오디 균핵병에 약하므로 균핵병 상습지에서는 재배시 하우스 재배와 같은 방법으로 균핵병을 줄일 수 있는 재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